

## 토 론 회

### 국어사전학의 여러 문제

주 제 발 표 : 이 현 복(서울대)  
                  홍 재 성(연세대)  
                  심 재 기(서울대)  
사       회 : 이 병 근(서울대)  
토 론 자 : 김 석 산(서울대)  
                  유 만 근(성균관대)  
                  이 익 섭(서울대)  
                  이 기 동(연세대)  
                  때 : 1986년 12월 13일

**사회:**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국어사전학의 여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전학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사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전학(lexicography)의 목적은 순수한 학문의 면에서 말하면 사전이라고 하는 언어텍스트에 대한 연구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실천적인 또는 응용적인 면에서 말하면 사전의 편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전편찬이 본질적으로 실천적인 실용적인 활동이라 하더라도 표제항의 선정·배열 및 그 구조(macrostructure)로부터 각 표제항의 내적인 구조(microstructure)에 이르기까지 언어학적 기초가 없이는 이상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여러 어휘집으로부터 개화기의 과도적인 사전들을 거쳐 현재 많은 사전들이 나와 있는데, 이들 사전들이 그 나름대로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대체로 단어장의 성격에서 크게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일 겁니다. 그리하여 사전텍스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서의 사전학도 정립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

언어학과 사전학과의 관련 위에서 좀더 훌륭한 사전도 편찬되어야 하는 과제가 시급하다고 여겨서, 오늘의 토론회의 주제를 사전학으로 잡아 본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전구성의 여러 문제 중에서 특히 발음의 표시, 문법정보의 처리 및 뜻풀이(즉 정의) 등 세 가지에 한정시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성학 특히 표준발음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던 서울대학교의 이현복교수, 통사론 및 사전학에 중요한 업적을 내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홍재성교수, 그리고 어휘의미론에 특별한 관심을 두어온 심재기교수께서 지금 말씀 드린 세 가지 사전학적 주제를 각각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가 있는 다음에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